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지 못한다.
원망을 떠나야 원망을 풀 수 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8월 13일)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비지정 사찰 문화재 보존 활성화되나

문화재 예산 1조원 시대, 불교계 영향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 관련 국가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지나 비지정 사찰 문화재 보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0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올해 예산인 9,008억 원보다 18.1%(1,628억 원) 증액한 1조 6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 예산이자 최대 비율 증액이다. 문화재 예산이 최대 증액편성이 이뤄짐에 따라 문화재청이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문화재청이 중점 투자할 것을 밝힌 분야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 6월 개청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문화유산 미래정책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중점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현재의 지정 위주의 문화재 관리가 아닌 목록주의적 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공표했다.

정재석 문화재청장 역시 지난 8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내년 문화재청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불교와 사찰 비지정문화재 보존 관리에 더 많은 예산 반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전국 228개 지자체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와 DB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다.

또한 △첨단 기술을 문화재 보존·방재에 활용 △무형문화재 보호 지원 확대 △문화재 활용사업 확대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관리 강화 등을 계획으로 내놨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 여력이 부족하였던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의 기반 마련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문화재 행정과 정부혁신 성과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2020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화재 국가 예산 증액 편성에 불교계는 '환영'의 입장이다. 당장 비지정문화재 관리 부문에서 불교계 폐사지 조사와 다량 유물 소장처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신유철 조계종 문화부 팀장은 "다량 유물 소장처에는 성보박물관과 문중 유물전시관이 포함돼 있다. 전체 소장처의 80%에 해당되는 만큼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교계 다량 유물 소장처의 관리 체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의 문화재 예산 분석과 국가 정책 대응도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조계종은 불교 관련 문화재 예산을 분석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유철 팀장은 "현재까지는 불교 문화재 예산 규모나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이 안됐지만, 면밀한 조사할 계획"이라며 "개별 지원보다 전체적인 불교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에 초점을 맞춰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정책이 5년마다 새로 수립된다. 당장 2021년에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에 불교계의 정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문화재 예산의 1조원 시대 개막은 축하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아직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궁과 능에 대한 예산 비율이 높다. 불교 관련 문화재 예산 편성과 반영·집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꾸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내년 예산 1조원
올해보다 18% 증액 편성돼
비지정문화재 포괄 등 중점

불교계 대량 유물 소장처 등
사찰 문화재 관리에 '청신호'

조계종, 예산 증액 '환영' 입장
"불교 예산 규모·사용처 조사해
향후 국가 정책 반영 나설 것"



금산사 성보 첫 서울나들이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은 9월 3일 오후 3시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19 특별전 '모악산 금산사–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의 개막식을 개최하고 11월 30일까지 전시에 들어갔다. 금산사의 성보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개되는 이번 전시는 118점의 성보문화재를 전시한다. 개막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우측서 두번째)이 불주사 목조아타여래좌상(조선 1666, 전북유형문화재 제194호)과 불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조선 1647, 전북유형문화재 제193호) 앞에서 합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불교중앙박물관 홍보대사 배우 이원종, 금곡 스님, 김종회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 글·사진=박재완 기자

이각범 불교진흥원 이사장 끝내 사임

8월 29일 사표… BBS사장후보 추천 논란 책임진 듯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각범 이사장〈사진〉이 8월 29일자로 사임했다. 이 이사장은 개인수행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앞서 논란이 된 BBS불교방송 사장후보 추천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불교진흥원에 따르면 이각범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불교적인 가치의 전파를 추구하는 데 평소 개인적인 수행이 부족해 더욱 정진하기 위해 떠난다"는 취지로 사무국에 이사장과 이사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했다. 이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 14일까지였다. 그는 또한 앞서 자신이 출연 중이던 BBS불교방송 라디오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도 물러났다.

이에 진흥원 이사회는 30일 회의를 소집하고, 이 이사장의 사임을 확인했다. 다만 이사회는 이 이사장의 사임 배경을 BBS불교방송 사장후보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파행 논란에 대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사장의 궐위에 따라 직무대행은 가장 연장자인 김규칠 이사가 정관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차기 이사장 선임은 BBS불교방송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 처리 후 신임이사 선출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이사장은 이각범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아닌 새로 3년 임기를 수행한다.

한편 이각범 이사장은 BBS불교방송 사장후보 추천 당시 관례인 사장후보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이 이사장은 지난 7월 3일 해명 기자간담회서도 BBS 선상신 前사장에게 두터운 신임을 보이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정성 결여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신임 교육원장 진우 스님 추천

총무원장 원행 스님, 9월 4일 추천서 접수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으로 불교신문사장 진우 스님〈사진〉이 추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4일 진우 스님에 대한 교육원장 추천서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교육원장은 지난달 현응 스님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해인사 주지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 인사심의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개원하는 제216회 임시회에 앞서 자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종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다.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다. 고불총림선원, 용흥사 몽성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사서실장·호법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불교신문사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독자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다음 주 신문 휴간합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 회장후보 육문스님의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서

전국에서 막대한 원력으로 소임에 진력을 다하시는 비구니스님께 불보살님의 가피를 기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논리 정연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법을 설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법이며 인과의 법칙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 정연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2600년이 지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연기법의 논리체계위에 견고하게 구축되었기에 21세기 이 시대 보편적 지성과 눈부신 자연과학의 성과에도 배치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 등장하는 공약, 청사진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대한불교조계종단의 정책을 뛰어넘는 불교 최대의 종단이 새로 만들어질 기세입니다. 이쯤에서 부끄럽지만 전국비구니회는 운영할 수 있는 자산과 예산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전국비구니회의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미래의 희망찬 공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미래의 청사진은 집행할 예산이 없어 공허한 토끼의 뿔과 거북이의 털처럼 비현실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정책 제시는 마땅히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업과 재원의 확보 방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담벼락 너머로 뿔이 보이면 소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산 너머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산불이 났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을 실행할 구체적방법과 재원의 조달방법을 말하지 않는 공약은 대중들에게 의구심을 일으키고 미래의 희망이라는 속임수로 미혹시키는 희론에 불과합니다.
육문스님이 구상하는 차기 운영계획은 실천 가능한 정책과 사업의 재원마련에 거짓과 속임수로 대중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계종 사업부와 연계하여 사찰의 달력 제작 판매 사업, 카페메따 운영 사업과 같은 다양한 수익 증대사업을 늘리고 전국비구니스님들의 의료와 복지, 교육의 혜택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으로 전국비구니회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2017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비구니회 제반 사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백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입원수술 의료비지원을 증액 할 것입니다. 또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Kumuda)의 비구니승가 교육비지원으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개설하는 교육연수를 무료로 실시하는 실천가능한 정책들을 시행할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자산과 예산의 벽에 막혀 역량있는 비구니스님들을 외국유학을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과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의료, 복지, 교육 혜택을 전국비구니회에 소속된 원로스님부터 새로 출가한 사미니스님들까지 한분한분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들로 전국비구니회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새로운 전국비구니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재원마련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육문스님의 실천 가능한 정책들에 지지와 성원의 힘을 보태며, 지혜 있는 대중스님들의 정견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해인사약수암 예산보덕사 속리산수정암 월정사지장암 김천총지사 해인사자비원 부산보덕사 윤필암 운문사 청암사 동학사 경주감산사 개선사 금강사 길상원 관음사 광명사 광림사 광원사 광주흥용사 구미천해사 구현선원 극락암 금곡사 금당선원 금련사 금륜사 금선사 금천선원 남화사 내원사 능인사 능인선원 다보사 대광사 대구감로사 대성암 대승사 대운사 대원사 대원정사 대전석왕사 덕수암 덕암사 도덕정사 두륜사 마하연사 명법사 명성암 묘심사 묘법사 묘희원 무애사 무위사 무위선원 무주사 문수사 문수암 미륵암 미타사 백운사 백흥암 반야선원 방생선원 반야암 법계사 법등사 법륜사 법성사 법융사 법정사 법제사 법주사 법천사 보광사 보명사 보문사 보성사 보은사 보장사 보탑사 보현정사 보혜사 복천사 봉림사 봉성암 봉은암 부곡암 부산관음정사 불국사 비웅사 빛고운절 삼보사 삼천사 상선암 서운암 서울금강사 서학사 석남사 석불사 선원사 선정사 석계암 성덕사 성덕암 성심사 세등선원 소림사 송남사 송원사 수덕사견성암 수덕사극락암 수도사 수미정사 수월암 수효사 신녕포교당 신흥사 심불사 아리정사 안덕사 안양암 약사사 안심사 약천사 연수암 연화사 영덕사 영선사 영원사 영은사 영통사 영천사 오봉사 옥련선원 용주사 용천사 용해선원 용화사 원각사 원만사 원명사 원해사 월곡사 유점사 의성정수사 인천진운사 자광사 자룡사 자비사 자재정사 전법사 정암사 정토법당 정혜사 제주관음정사 지장사 진관사 통일정사 천장복사 천태암 청계사 청련사 청림사 청수암 초암사 충효사 칠성사 평화사 학림사 해인사금강굴 해인사보현암 한마음선원 향림사 행복선원 현정사 혜광사 혜명사 혜문사 호명사 화원사 홍은사 황룡사 효심사 휴심정사 흥법사

제12대 전국비구니회 회장후보 육문스님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중일동